

신규 설비를 도입했습니다.

품질에도 문제없고,
환경에도 문제없고,
안전에도 문제없다고 합니다.

그런데 내부심사원은 무엇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할까요?

ODI 관점에서 보면 먼저 질문부터 바뀌어야 합니다.

"품질에도 문제없고, 환경에도 문제없고, 안전에도 문제없다."

이것은 **결론**입니다.

내부심사원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**그 결론에 도달한 근거(Evidence)**입니다.

먼저 확인해야 할 것

심사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

Step 1. 무엇이 변경되었는가?

신규 설비 도입은 단순 구매가 아닙니다.

조직 입장에서는:

- 인프라 변경
- 공정 변경
- 작업방법 변경
- 위험 변경

입니다.

따라서 첫 질문은:

"신규 설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?"

입니다.

Step 2. 어떤 리스크가 새로 발생했는가?

설비가 들어오면 반드시 리스크 구조가 변합니다.

품질 측면

- 공정능력 변화
- 불량유형 변화
- 측정방법 변화
- 생산능력 변화

환경 측면

- 전력 사용량 변화
- 폐기물 변화
- 소음 발생
- 배출 영향 변화

안전 측면

- 협착 위험
- 감전 위험
- 비상정지 필요성
- 작업자 접근 위험

심사원의 관심사는

"문제가 발생했는가?"

가 아닙니다.

"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달라졌는가?"

입니다.

Step 3. 조직은 어떻게 평가했는가?

여기서 내부심사원이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.

신규 설비 도입 전에 어떤 검토를 했습니까?

확인할 Evidence 예시

- 변경관리 기록
- 설비 도입 검토서
- 리스크 평가서
- 환경측면 평가
- 위험성평가
- 투자 검토 자료

- 승인 기록
-

Step 4. 통제는 설정되었는가?

설비를 설치했다면

어떤 통제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예를 들면

품질

- 작업표준 개정
- 검사기준 변경
- 공정조건 설정

환경

- 환경측면 재평가
- 법규 검토
- 운영관리 기준 설정

안전

- 위험성평가 실시
 - 안전장치 설치
 - Lock-Out/Tag-Out 적용
 - 비상정지 기능 검증
-

Step 5. 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가?

여기서 많은 심사원이 멈춥니다.

문서를 확인하고 끝냅니다.

하지만 좋은 심사는

문서 → 운영 → 효과성

까지 갑니다.

따라서 심사원은 물어야 합니다.

"실제로 설비를 가동해 보십시오."

"작업자는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?"

"비상정지는 어떻게 작동합니까?"

"최근 생산실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?"

최종 판단

내부심사원이 판단해야 하는 것은

- ✗ 품질 문제 발생 여부
- ✗ 환경 문제 발생 여부
- ✗ 안전 문제 발생 여부

가 아닙니다.

내부심사원의 진짜 판단 대상

신규 설비 도입이라는 변경이 발생했을 때

조직이 관련 리스크를 식별했고,

필요한 통제를 설정했으며,

그 통제가 실제 운영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가?

입니다.

신규 설비 도입 심사에서 가장 강력한 질문은 이것입니다.

"품질·환경·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?"

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

"그 판단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는 무엇입니까?"

입니다.

ODI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.

이 신규 설비는 어떤 설비입니까?

- 생산설비입니까?
- 검사설비입니까?
- 자동화설비입니까?
- 환경방지시설입니까?

설비 종류에 따라 내부심사원이 추적해야 할 리스크와 Evidence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먼저 그 운영 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.